

목포 소각장 재추진 논란...전국 의료폐기물 반입 우려

반려동물장묘업체, 대양산단 내 소각시설 설립 사업계획서 제출 하루 48톤 처리 가능...행정구역 제한 없고 환경평가 대상도 제외 감염병 병원균 전파 등 우려...업체 측 “법적 문제 없이 절차 진행”

목포시 대양산업단지 내에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립하는 사업이 재추진 절차에 돌입하자 시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목포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동당 목포지역 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목포시의 한 반려동물장묘업체 A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목포시 대양동 동물화장장부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

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A업체는 대양동 반려동물 화장 시설 부지에 하루 48 t 용량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1일 소각용량이 100 t 미만일 경우 사업 인·허가 전, 사업의 환경적 영향(대기, 수질, 토양, 생태, 소음 등)을 정밀 예측·평가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주민공람

및 협의 절차도 의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민노당 등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해당 시설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데도, 주민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측 주장이다. 목포지역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이미 소각장, 매립장, 도축장 등 일명 혐오시설이 밀집돼 있는 만큼, 외부에서 의료폐기물까지 반입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소각장 설치 시 행정구역 제한 없이 전국에서 의료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근에 감염병 병원균이 전파되거나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

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인두 목포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의료폐기물에는 인체조직, 동물실험 사체 등 고위험 감염물질이 포함돼있을 수 있다”며 “하물며 일반 쓰레기도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 등 배출 우려로 주민 공청회 등을 반드시 여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11월 19일 해당 사업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했다가 보완 제출을 요구받았다. A업체는 기한 내에 보완 제출을 하지 않아 지난 2일 사업계획을 취하 당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A업체가 외부 반발을 감안해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했다”

고 설명한 것과 관련, “사전환경성검토는 계획 수립 단계 또는 인·허가 전 입지의 타당성과 대안 검토 중심으로 이뤄질 뿐 소각시설 가동 이후 영향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수 없다”며 예방적 차원의 종합적인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업체측은 “의료폐기물은 밀봉상태로 철저히 관리 이동되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유출될 일이 없으며 환경청의 보완 요청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A업체 관계자는 “남는 부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법적으로 문제 없이 절차를 밟아가고 있으며,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폭우로 도로에 쓰러진 나무 장마전선이 남하해 폭우가 쏟아진 21일 밤 광주시 서구 풍암동 2순환도로에 나무가 쓰러져서 소방대원들이 긴급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내달 말까지 내린다

단기간에 많은 비 ‘극한 강수’ 우려

오는 24일부터 광주·전남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22일 광주지방기상청은 “24일부터 25일 새벽까지 제주도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을 받아 장맛비가 다시 내리고 이후 북상하겠다”고 예보했다. 24일 광주·전남에는 5~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장마전선은 다음달 말까지 한달여에 걸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적으로 광주·전남 장마는 6월 23일에 시작돼 7월 24일까지 31일간 이어진다. 지난해는 6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36일간 장마가 이어졌고 이 중 22.3일 동안 비가 내렸다. 2023년에는 6월 25일부터 32일간(강수일 25.2

일), 2022년에는 6월 23일부터 33일간(강수일 14.9일) 이어졌다. 장마 기간 중 단기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 강수’가 나타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극한 강수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의 양이 평균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를 가리킨다. 지난 21일 광주에는 총 133.5mm 비가 내렸는데, 이는 역대 6월 하순 일강수량 중 네 번째로 많은 양이었다. 시간당 강수량도 최대 39.1mm로 역대 4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극한 강수’가 내리는 빈도는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마 기간 동안 433.0mm의 비가 내렸는데, 최근 30년 평균 장마기간 강수량인 338.7mm를 넘어선 수치였다. 이 때 내린 비가 전체 여름철 강수량 중 79.9%를 차지해 1973년 관측 이래 세 번째로 큰 비율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23년에는 장마 기간 동안 765.5mm가 내

려 장마 기간 강수량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22일 전남 지역에도 최대 150여mm에 달하는 장맛비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곡성 155.0mm, 영광 안마도 153.6mm, 구례 성삼재 151.0mm, 담양 봉산 137.5mm 등이었다. 담양 봉산에는 시간당 47.5mm의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다. 도로침수와 정전 등 피해도 잇따랐다. 소방당국에는 도로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60여 건이 소방에 접수됐고 광양, 곡성 등 6개 지역에서는 산사태주의보로 13개 마을 70여명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대피하기도 했다. 한편 장마전선이 북상하기 전인 23일까지 광주·전남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맑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아침최저기온은 16~20도, 낮최고기온은 26~32도에 달하는 등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12·29 제주항공 참사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유가족협의회 출범

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유가족협의회를 출범하고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는 지난 2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범식을 갖고 새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유가족들은 그동안 단체 등록 없이 활동해오다 지난달 30일 유가족협을 비영리민단체로 등록하고 이날 공식 출범했다. 유가족협은 엔진에 빨려 들어간 조류와 엔진 손상 부위를 유가족에게 밝히고 사고기 블랙박스 기록인 ‘비행기록장치’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 외부로 이관해 독립성을 보장할 것, 사고 피해를 키운 ‘로컬라이저’ 문턱이 설치된 이유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 대통령과 유가족 간 면담을 실시할 것 등도 요청했다. 유가족협은 지난 13일 발생한 에어인디아 787

-8 드림라이너 추락 사고를 통해 제주항공 사고기에 비상용 풍력 발전기인 RAT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인도 정부가 참사 3개월 안에 사고 원인을 밝힐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선언한 점을 들어 우리나라 정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유가족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참사가 발생한 지 반 년이 됐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처벌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179명의 희생자의 죽음을 진상 규명에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유가족이 추천하는 조사위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의 참여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HL8088편이 동체 착륙 후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전남경찰청은 자체 수사, 고소장 접수 등을 통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총 2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고위험사업장 ‘폭염안전 5대 수칙’ 지키세요

고용부 오늘부터 지도·감독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한다고 22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은 ▲물 제공 ▲선풍기·그늘막 설치 및 작업시간대 조정 ▲휴게시설 설치 및 휴식 제공 ▲개인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다. 노동부는 이달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고, 23일부터는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흡한 사항은 개선 조치하고, 냉방·통풍장치, 주기적 휴식 부여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한다. 노동부는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150억원을 편성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